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제 1579 호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현대불교 B1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관계 끊는 시대 자비로 이어내다

'손절'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일상의 언어가 됐다. 본래 '손절'은 증권가에서 쓰던 용어였다.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할 때 사용되던 '손절'은 어느새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됐다. 불편하면 끊고, 상처 주면 차단하며, 맞지 않으면 삭제한다. 관계는 기다림과 조율의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 비용을 따져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됐다.

최근 출간된 〈손절사회〉 역시 현대사회가 인간관계마저 손익계산의 언어로 바꾸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자발적 단절을 선택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손절사회'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쉽게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손절의 이면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다. 반복된 실망, 과도한 감정노동, 경쟁과 비교, 돌봄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의 문을 닫는다. 그런 점에서 손절은 냉정함이기 전에 불안의 표현이며, 단절은 무관심이기 전에 고통의 방어기제다.

이 지점에서 불교의 자비는 손절사회에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자비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다. 해로운 관계, 폭력적 관계, 착취적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갈등과 불편함을 '유해함'으로 규정하고 관계 자체를 폐기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사회는 점점 더 외로운 개인들의 집합으로 변한다.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다.

불교계가 펼쳐온 자비행들은 손절사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다. 불교계는 복지 현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지원, 청년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다양한 자비나눔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는 사회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이다. 가난, 질병, 고립, 노년,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기 쉽다. 손절사회는 때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내 일이 아닌 사람'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불교복지는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한다. "당신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실천으로 전한다.

마음돌봄 분야 역시 중요하다. 오늘의 단절은 물질적 결핍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관계에 지치고, 감정에 다치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교계의 마음돌봄 사업은 명상과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 고립감을 돌보는 시도를 이어왔다.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보는 일은 곧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제구호는 자비가 국경을 넘어서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등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은 국제개발, 긴급구호 등을 펼치고 있으며,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과 국내 송환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지구 반대편의 재난, 빈곤, 전쟁, 기후위기는 결국 우리의 삶과도 이어진다. 자비는 그 연결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며, 그 감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이제 불교계의 자비행은 복지와 구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언어가 돼야 한다. 사찰은 지역의 외로운 이들을 품는 마음의 쉼터가 되고, 복지시설은 끊어진 삶을 다시 공동체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며, 마음돌봄은 불안한 개인에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제구호는 자비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임을 보여줘야 한다.

손절은 관계를 정리하지만, 자비는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손절은 나를 지키기 위해 타자를 지우지만, 자비는 나를 지키면서도 타자를 악인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손절사회'가 고립의 시대를 증언한다면, 불교의 자비행은 다시 연결의 가능성을 밝히는 등불이다.

부처님오신날, 우리가 켜야 할 등은 법당 안의 연등만이 아니다. 단절된 마음과 마음 사이, 외로운 개인과 공동체 사이, 고통받는 이웃과 무심한 사회 사이에도 등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손절사회를 자비로 잇는 불교의 길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